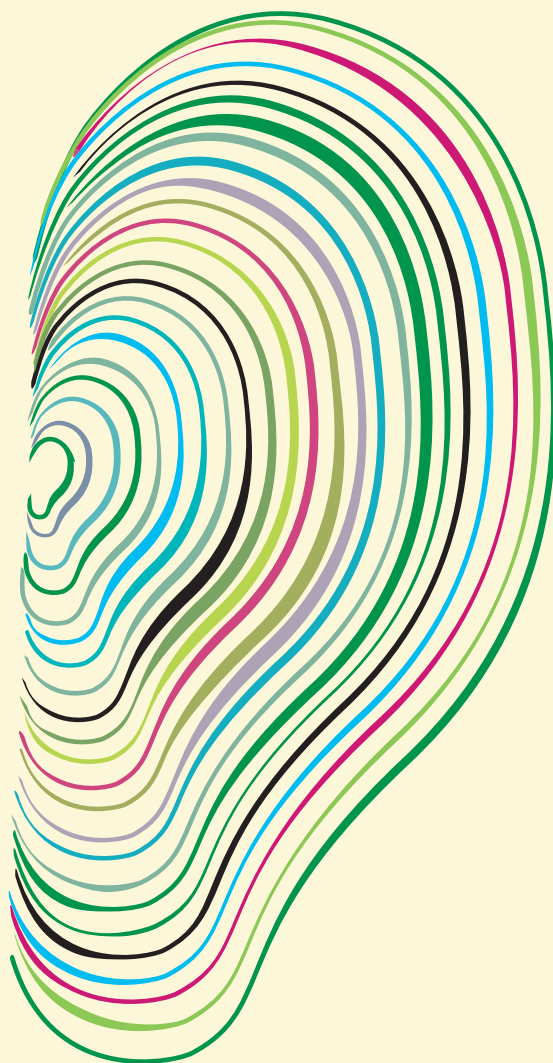


세플러⁺원

Vol. 64 / Spring 2021

**E
A
R**



SCHAEFFLER

#OpenYour'EAR'



Seoul

우리는 각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목구비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어우러집니다. 이목구비는 자신만의 정체성이자 소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세상과 잘 소통하기 위해, <세플러+원>은 1년 동안 '이목구비'를 주제로 각 사업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담은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오픈유어 귀'라는 테마로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름에는 '눈'을 테마로 창원연구소의 이야기를 담은 예정이며, '입'을 테마로 안산, '코'를 테마로 전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청을 통해 더 지혜롭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플러+원> 인터뷰 코너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한 것으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플러+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일 2021년 4월 15일(통권 제 64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기획·디자인 파플페이지(대표전화 02.6674.0111)

Contents



- 6 **Theme Outside**
귀 기울이면
- 10 **Theme Inside**
오픈유어 귀, 오픈유어 마인드
- 14 **Theme Graphic**
당신의 경청 지수는?
- 18 **Plus Info**
귀와 명언들



- 20 **특별한 하루**
제 자동차 어때요?
- 24 **추억의 재구성**
삐삐의 추억, 삐삐의 사랑
- 28 **반짝반짝 빛나는**
효율성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32 **요즘 취향**
지금은 '소리'의 시대



- 38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경청하고 있습니까?
- 40 **건강한 이목구비**
귀, 건강한가요?
- 42 **1 Hour Trip**
아이슬란드의 오로라와 서울의 박물관



- 46 **세플러 공모전**
말풍선에 담긴 상상력
- 50 **Schaeffler Headline**
- 55 **Reader's Page**



세플러의 경청, 열정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가만히 귀 기울이면 들려옵니다.
유쾌한 동료의 인사가, 너그러운 상사의 웃음이,
세플러의 임직원은 오늘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열정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Theme
Info

귀 기울이면

말할 것도 없이 소통은 사회 관계의 근원적 힘이 된다.
그러한 소통의 기본이 되는 경청에 대한 소고.

글. 이진영 (문화평론가)



왜 경청인가?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 대부분의 원인 중 하나가 소통의 부재다. 소통은 상대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미디어와 메시지로 인해 혼잡하여 잘 듣지 못한다. 수없는 판단의 상황과 마주하기에 생각이 많아 잘 들을 수도 없다. 그러나 소통 없는 사회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경청'의 자세다.

그들의 경청

경청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도 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의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한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13년, 오바마는 국방대학교를 찾아 연설을 진행했다. 미국의 대테러 정책이 바뀐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그곳에 미디어 벤저민도 자리하고 있었다. 철저한 반전운동가였던 그는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덕분에 연설은 3번이나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위기를 맞은 오바마, 그러나 그는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으며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주장한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꺼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당황한 기색의 벤저민은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후 영국 가디언지에 실은 칼럼에서 오바마를 거론했다.

“그는 계속된 공격에도 온화한 태도를 잃지 않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끝까지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리더, 이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는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던 반전운동가들 사이에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경청의 태도로 신뢰를 얻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혁신의 상징, 제프 베이조스는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올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선문답처럼 모호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듯 차분한 태도로 답했다.

“우선 상대의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세요.”

제프 베이조스의 답변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고 해석되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기업이 성장하려면 변화와 혁신이 바탕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가 바로 상대의 말을 많이 듣는 것(경청)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즉 경청이야말로 자기 파괴와 혁신의 지표와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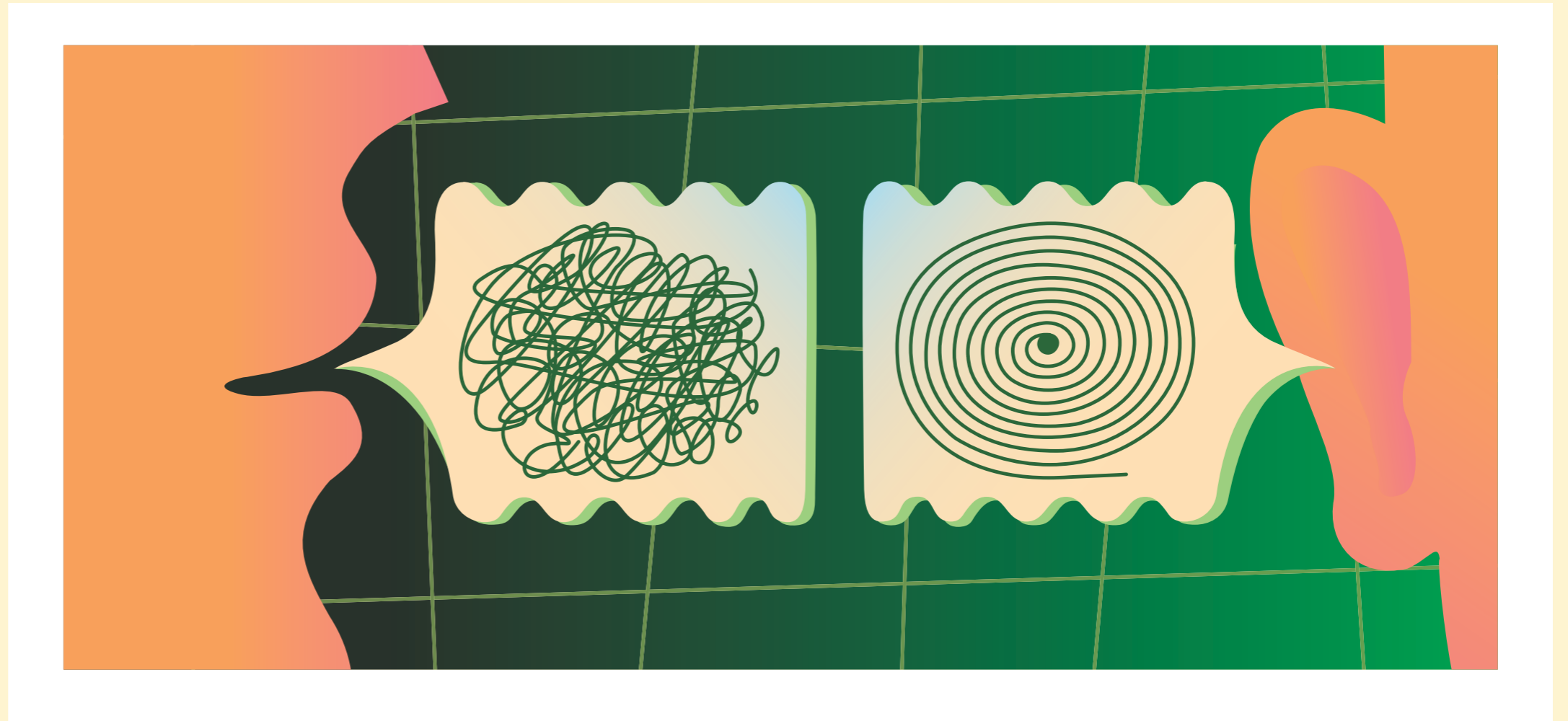
앨런 조지 래플리도 경청의 힘을 통해 P&G그룹을 위기에서 구했다. 자신을 CEO(최고경영자)에 빚낸 최고청취자(CLO: Chief Listening Officer)라 칭하며 대화 중엔 항상 3분의 2 원칙을 지켰다. 대화의 3분의 2는 듣는 데 할애하고, 자신이 말하는 데는 3분의 1만 썼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질문을 던지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보통 상사들은 부하 직원의 말을 감시하고 스크린하고 필터링하기에 급급한데, 래플리는 그들과 다르게 '상대방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려고 애쓴다. 이를 위해 회의에서 “제 생각과는 맞네요”, 정말 그럴까요?”라는 식의 구체적이지 않은 반론은 금지했다고 한다.

맥락경청과 BMW

그렇다면 어떻게 경청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은 맥락경청(Contextual Listening)을 언급한다. 상대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듣는 이상적 경청을 가리키는데, 이를 위해선 '자기객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목적과 감정으로 상대와 소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상대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은 자연스럽게 조율된다. 소통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상대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맥락경청이 내면적 소통법이라면 이른바 'BMW 소통'은 실질적이며 외형적이라 할 수 있겠다. BMW 소통은 상대와의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데, 'B'는 'Body language'로 상대의 자세, 몸짓 등을 따라 하며 듣는 것이다. 'M'은 'Mood'이며,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을 자신에게 이입시킨다. 'W'는 'Word'를 가리키는데, 일명 앵무새 기법으로 상대의 말을 정리하고 반복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B'는 상대방이 박수를 치면 따라서 박수를 치는 것이고, 'M'은 상대방이 우울해 보이면 자신도 우울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W'는 상대방이 "상사에게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네"라고 이야기하면 "상사에게 혼났어?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BMW 소통은 공감을 위해 상대방의 반응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맞장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수단으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B, M, W의 과정을 거치면 상대와의 공감대가



BMW 소통 예시

- A**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 (B와 똑같이 행동하며, 감정 이입하기)

후배에게 쓴 소리했더니 기분이 좋진 않네. **B**
- A** 후배에게 쓴 소리했어?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구나. (상대방의 말 인용하기)

응,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B**
- A**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상대방의 말 인용하기)

논점이 흔들리거나
방법이 서툴더라도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다.
그야말로 귀를 열고
주위 소리에 집중하자.
그러면 분명 들릴 것이다.

형성되고, 더 넓고 깊은 소통이 가능해진다. 기억하자. 가장 뛰어난 경청 능력을 가진 사람은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다.

경청과 다양한 소통

경제 그루 피터 드러커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60%가 잘못된 소통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잘못된 소통이란 소통의 오류와 소통의 부재를 포괄한다. 지속되는 팬데믹, 우리가 눈 여겨 볼 부분은 소통의 오류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상대론적 관점에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논점이 흔들리거나 방법이 서툴더라도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다. 그야말로 귀를 열고 주위 소리에 집중하자. 그러면 분명 들릴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픈유어 귀, 오픈유어 마인드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이덴크란츠 로버트 CFO를 만나 경청과 열린 소통에 대해 들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플러코리아의 CFO 자이덴크란츠 로버트입니다. 2006년 그룹에 입사했으며, 2008년 싱가포르에서 업무를 보다가, 2010년 중국에서 사업 관리와 투자 관리 업무를 진행했어요. 2014년 일본에 CFO로 부임했고, 2018년 세플러코리아의 CFO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데, 한국에서는 팔봉산의 8개 봉우리가 기억에 남네요.

이번 사보 테마가 '오픈유어 귀'입니다. 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귀를 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듣는 이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문화의 차이를 인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제 경험상 싱가포르와 중국은 비교적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일본은 관계를 중시하는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고요.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알지 못하면 잘 들을 수도, 잘 전달할 수도 없겠지요. 아울러 선입견을 지양해야 합니다. 선입견이 있으면 상대의 의견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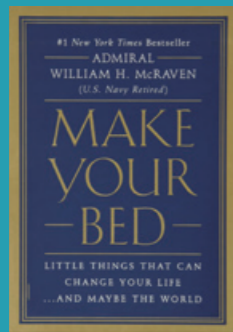
열린 마음의 소통을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소통 능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소통을 위해선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저는 아직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면 세플러코리아 직원들의 경청은 인상적이에요.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위해 애쓰는 모습, 그런 부분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심각하거나 복잡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사와 대화할 때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것들을 쉽게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덴크란츠 로버트 CFO가 추천하는 책

2017년 출간된 책으로 맥레이브 제독이 2014년 5월 17일 모교인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했던 감동적인 졸업식 축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감을 얻고 있는 책인데요, 10가지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를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할 수도 있죠. 특히 열 'Never, Ever Quit!'가 가장 좋아요. 포기하지 않고 열린 소통을 이어가는 거죠.



Make Your Bed

열린 소통과 경청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의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상대를 믿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열린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관계를 중요시 하죠. 그래서 저는 저녁이나 간단한 술자리 등의 자리를 만들어 편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해야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도 직접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오픈유어 귀, 조직에 있어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 팀워크에 큰 도움을 주니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정보 왜곡이 발생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치 않아 미션 성공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잘못된 정보를 줄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죠. 자연히 팀워크가 좋아지고 미션 성공률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아빠, 최고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에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려 합니다. 업무적으로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과거 세플러코리아는, 세플러그룹에서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고, 옆친데 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임직원에게 도전과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며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청, 열린 소통을 위해 자기 성찰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판적 자기 성찰은 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통할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 듣는지, 어떤 자세가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분들이 한국 내에서 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그리고 AP, 본사와 함께 One Schaeffler 정신을 가지고, 더 진정성 있고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경청의 자세가 열린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의 입장까지 배려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자이덴크란츠 로버트
CFO

당신의 경청 지수는?

귀 기울일 수록 세상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
경청 지수도 체크해보고, 경청에 대한 임직원의 생각도 들어보자.

경청, 체크리스트

나는 대화하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되도록 자세를 낮추고자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주장을 펼칠 때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늘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이야기할 때 타인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타인과 의견이 달라도 그가 옳으면 곧 인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세상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대화할 때 늘 좋은 표정을 유지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판단하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상대방의 주장이 나와 너무 달라도 끝까지 듣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하며 대화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상대방에게 결론만을 먼저 말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그렇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6점 : 매우 그렇다
1점에서 6점 사이 자신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매겨 합산하세요.

출처 및 참조 : 함께하는 경청



경청, 당신은 어떤 타입이세요?

36점 미만



연설형

당신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장연설형입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지시에 가까워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선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통 시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는 '패러프레이징'도 참고하세요. "A를 하려면 B가 필요하다"는 거군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들려주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당신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54점 이상



취재형

당신은 공감 없이 핵심만 요구하는 거두절미형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따르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7%만 언어로 전달되며, 나머지 97%는 음성, 어조, 표정, 몸짓 등으로 전달된다고 해요. 대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상대방의 목소리, 표정, 몸짓 등도 살펴보세요. 더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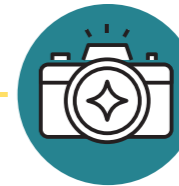
43점 이상



논객형

당신은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끝장토론형입니다. 당신의 머리 속엔 이미 자신의 메시지가 가득하기에 상대방의 메시지를 경청하기 힘들어요. 배려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관련된 질문을 주고 받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 물론 그러한 질문 속에는 상대의 입장이나 의도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어야겠죠.

54점 이상



취재형

당신은 궁금한 사항 중심으로 듣는 정보 습득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소통 중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효율적 소통을 원한다면 자신의 대화 점유권은 30%만 가지고, 나머지는 상대에게 주세요.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경청해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65점 이상



경청형

당신은 상대의 생각과 감정까지 헤아리는 경청대화형입니다. 이미 경청을 잘하고 있지만, 한 차원 높은 공감적 경청에 도전하면 어떨까요? 공감적 경청은 상대의 마음까지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상대에 대한 평가적 견해, 의도 등을 모두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느낀 것을 전하고 공감대를 확장하며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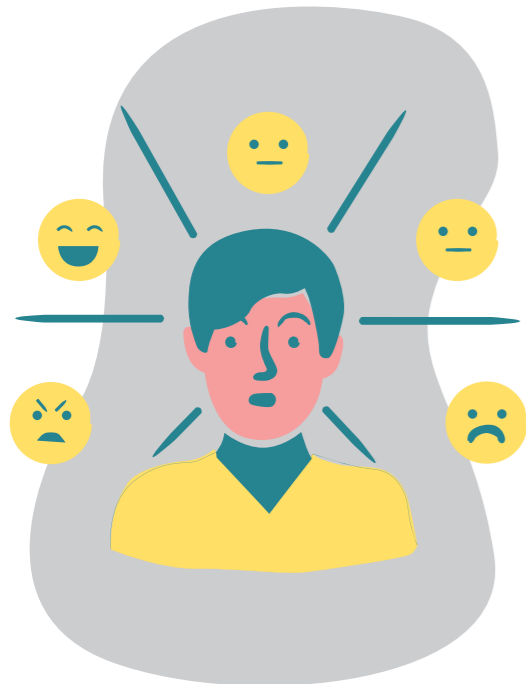
경청, 세플러 가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은 이해하고 끊지 않는 것입니다!”

SNS에서 'Do not listen with intention to reply, listen with intention to understand'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 최대한 반문하거나 반박하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만 하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말을 끊으시는데, 업무 협의할 때 이런 태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청이 안 되는 이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사무소 K**



“진심을 담은 리액션과 공감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리액션과 상대방의 의견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 뿐만 아니라 표정까지도 읽으면서, 진심을 담은 리액션과 공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었을 때 더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청을 위해 세플러코리아는 Communication Channel을 여러 방향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Digitalization을 통해 쌍방향 Communication Platform은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단 방향의 소통만 이루어지고,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비대면 활동이 일상이 되어서 경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얼굴을 마주하며 표정을 볼 수 없기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화를 이어 나가야 업무의 능률과 팀워크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 J**

“질문을 이어가며 화자 입장에서 들어요!”

경청을 위해 급한 성미를 잠재우고 상대가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 가도록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려 노력하고, 호기심이 영 생기지 않더라도 질문에 질문을 던지며 상대가 계속 답을 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겪었던 수직적이고 군대적인 문화와 비교하면 세플러코리아의 수평적 문화는 놀랍습니다. 원가를 바꾸기 보다 제가 느낀 좋은 점을 강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의 설명을 들을 때 화자의 얘기를 듣기 보다는 자기가 전할 말에 몰두하느라 요점을 놓치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이가 다음에 말할 내용에 집중해 듣다 보면 화자 또한 논점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심하게는 안건 중에 몇 가지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기도 하니까요.



서울사무소 L**



“경청을 위해 회사의 지원을 바랍니다!”

경청은 개인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사내 문화 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플러 또한 조직 구조(직급과 연령 등)에 맞는 다양한 제도나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임직원이 선호하는 그룹을 만들어 점심시간에 2시간 정도 길게 이야기를 하며 경청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경청과 소통,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복장 제도 변경으로 사내 분위기가 확 바뀐 것처럼 경청 문화도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소통과 경청이 점점 회사 내에서 줄어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회사에서도 경청과 사내 문화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문화적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변화된 사보도 좋은 예인 것 같네요!



서울사무소 L**

귀와 명언들

때로는 귀가 눈보다 사물을 더 잘 봐, 해피투게더의 대사처럼 귀(경청)의 가치는 중요하다. 귀와 관련된 명언들을 정리했다.

때로는 귀가 눈보다
 사물을 더 잘 봐
 예를 들어 누군가가
 행복한 척해도
 소리는 속일 수 없지

영화 '해피투게더' 中

탈무드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中
 잠시 귀를 막고 내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봐.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면 그것이 바로
 네가 평생 가치를 부여하고 해야 할 일이야.

피에르 생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행위는 타인을 위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를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中
 나를 잊지마. 내 생각이 날 때
 귀 기울이면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셰익스피어
 모든 사람에게
 너의 귀를 주어라.

칭기즈칸
 내 귀가
 나를 가르친 스승이다.

래리 킹
 당신이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도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영화 '카핑 베토벤'
 자네 작품을 봐. 너무 형식에 얽매어있어. 적절한 형식을 고르는 데 말야. 자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내 귀가 멀기 전까진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 그렇다고 자네 귀가 멀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영화 '클래식' 中
 조용히 귀를 기울려 봐 너의 가슴에서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공자
 현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투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다.



제 자동차 어때요?

계속되는 집콕 생활, 나른한 일상에 활력을 전하고자 임직원에게 컬러링 키트를 보냈다.



자동차 아트toy 컬러링 키트는 물감을 이용해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다양한 컬러를 이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컬러링을 통해 즐거움과 함께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컬러링의 장점 중 하나로 몰입을 들 수 있는데,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Flow)의 상태에서 인간은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컬러링을 진행하면 우울증 및 불안장애를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자동차 아트toy 컬러링 키트는 정해진 도면이 없어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하니 내재된 창의력도 극대화 시켜보자. 완성된 작품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단, 컬러링의 본질은 힐링임을 명심하고, 막중한 과제를 풀어가듯 과도한 압박감을 가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자.



이선종 부장
Customer Service Industrial

처음, 본 코너 참여에 응했을 때는 미니카에 단순히 색을 칠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받고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와가면서 만들어가니 어느새 멋진 버스가 탄생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들과 함께여서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concept 을 결정하고 밑그림 그리기, 부위별 색상 결정, 색칠하기 순으로 계획하고 착수하니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현 대리
사업관리



시작하긴 전엔 쉽고 간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집중을 하며 재미를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심심할 때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세진 과장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국내영업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한 나들이, 명절에 몇 시간이고 걸려서 가는 고향, 소중한 사람과의 데이트 등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했죠. 그 시간, 그 순간들 속에 '사랑(Love)'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료 여러분들은 자동차에서 어떤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서형진대리
Business Development
Automotive Tech.

눈이 오면 맥도날드 배달이 안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씨랑 무관하게 배달 받을 수 있는 맥카를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차라서 창문은 화색으로 썬팅되어있습니다. 색칠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지만, 배달원 분들이 편하게 쉬면서 배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삐삐의 추억, 삐삐의 사랑

세플러코리아에서 30여 년의 세월을 함께한 배병렬 부장.
그가 들려주는 삐삐의 추억.



회사에서 준 삐삐입니다. 90년대초 외근업무가 많았던 저는 회사로부터 휴대용 무선호출기인 삐삐를 지급받아 휴대폰을 사용하기 이전까지 업무 등에 사용했으니 약 25년 동안 사용하였네요. 저의 회사 생활을 함께한 소중한 삐삐라서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삐삐는 제게 사랑입니다.
아내와의 마음을 이어주던
고마운 메신저죠.
그때의 사랑이 이 삐삐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배병렬 부장
세무

세플러코리아와 함께한 30여 년

반가워요, 세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배병렬 부장입니다. 저는 첫 직장이 세플러코리아예요. 1987년 한국종합기계라는 사명이었을 때 입사해 지금까지 재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무려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군요. 그땐 패기 넘치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50대가 되었네요.

입사했을 때 생각하면 참 까마득해요. 당시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90년대 초반이 되니 엑셀이 출시되었고,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무제표, 회계 리포트 등 업무 양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거나 폐기된 것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문서 양식을 보면 왠지 모르게 흐뭇해지더군요. 제가 30여 년의 시간을 세플러코리아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낌 없는 회사 측의 지원과 잘 구축된 IT 인프라 때문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해외 여행 등 보상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는데, 저도 20년 장기근속 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왔어요. 또한 회사의 IT 인프라가 예전부터 잘 구축되어 왔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그 가치를 여실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카드와 회사에서 준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했어요. 재택근무를 하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자긍심이 들더라고요.

사랑의 메신저

입사 후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았어요. 그때 인터넷도 보급이 잘 되어 있지 않았죠.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휴대폰 자체가 없었어요.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폰과 음성 메시지나 연락 번호를 남길 수 있는 일명 비비(무선호출기) 밖에 없었고, 그것도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외근을 나가면 연락이 힘들었고, 마침내 회사에서 비비를 지급해주었습니다.

비비가 생기니까 모든 게 편해지더라고요. 회사와 소통도 편해지고 업무도 빨라졌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데이트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 아내는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죠. 비비가 없을 때는 데이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나가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공유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비비가 생기니까 구체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어 연애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야말로 '사랑의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외근을 나가면 연락이 힘들었고, 마침내 회사에서 비비를 지급해주었습니다. 비비가 생기니까 모든 게 편해지더라고요.”



메신저'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때 회사에서 비비를 지급해주지 않았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장거리 연애가 고달팠을 겁니다. 그래서 비비를 보면, 아내가 떠오르고 고맙다는 마음도 생겨요.

약속과 바람

올해는 코로나19로 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금연을 이어갈 겁니다. 2021년 1월, 30년 동안 피워오던 담배를 끊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저의 건강을 위해 결심했으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여행을 못 다녔는데, 기회가 되면 여행을 가고 싶네요. 업무적으로는 남은 회사 생활, 세플러코리아에서 정년까지 별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소원이예요.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상황이 나아져서 마스크를 벗고 웃으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귀를 열고, 의견을 듣고, 신속히 개선한다. 임직원의 효율적 업무를 지원하는 IT & Digitalization 팀을 소개한다.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해

IT & Digitalization팀은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IT Application 개발, 운영, 교육, 컨설팅을 맡고 있다. 본래 팀명은 '정보시스템'이었는데, 디지털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구현과 그룹의 전략을 감안 2020년 2월 IT & Digitalization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팀은 GTS(Global Technical Service)와 BAM(Business Application Management), 2개의 서브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GTS는 IT Infrastructure(Network, Server, PC, Printer, Software 등)의 신규 도입, 사용자 지원,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담당하며, BAM은 SAP, 인사급여, MES, 그룹웨어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팀은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하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노트북을 지급하고, 네트워크를 안정화시켰으며, 라스 시스템(Remote Access System, 회사 외 공간에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필요한 카드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로써 재택근무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킨 것이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팀의 차별화 역량은 적극성으로 대표된다. 시스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팀의 자세는 확연히 다르다. 선제적으로 니즈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안한다. 정기적으로 긴급 요청 건이 있는지 점검하며, 메신저 등으로 문의가 오면 통화를 하거나 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최대한 신속히 문제 해결에 나선다. 팀원들 간의 적극적 소통도 이어가는데,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며 이른바 집단지성을 활용해 솔루션을 도출한다. 팀의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으로 이어지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팀원들의 적극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간 회의 시간을 화합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통 팀의 주간회의 보고는 실적 위주로 팀장이 주관하는 회의로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데, IT & Digitalization팀은 실적 보고보다는 팀원들 간의 업무 공유라는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덕분에 전체적인 업무 진행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왼쪽부터 김기정 팀장, 성재규 부장, 서덕승 사원, 강찬규 차장, 임용범 부장

신속한 대처 능력

팀에게도 난관은 있었다. 연말정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국세청자료 PDF 파일을 연말정산 전용 PC에 업로드하고 추가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시행된 것이다. 팀은 임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도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짧은 시간 내에 찾아야 했다. 팀은 고민과 연구를 이어갔고, 마침내 직원들이 집에서 개인 PC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또한 팀의 적극적 자세와 집중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지속적 혁신과 지원

팀은 최신의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안정적이고 빠른 IT Infra Structure Service를 수행하면서, Big Data, Cloud, AI, RPA, Data Analytics 등을 활용한 Digitalization 전환에 힘을 계획이다. 새롭고 혁신적인 협업툴 등 임직원에게 필요한 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이 최적의 업무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나만의 오픈유어 귀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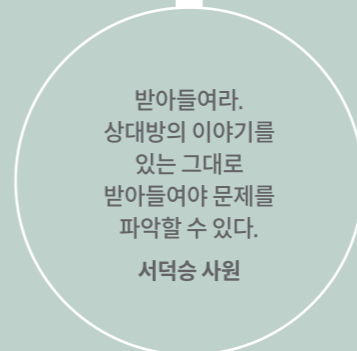
끝까지 듣는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끼지 말고
기다리자.
김기정 팀장



직접 들어라. 메신저
보다는 전화 등 직접
소통이 구체적인
소통을 이끌어낸다.
성재규 부장



한 템포 쉴 수
있게 하라. 감정을
가라앉히면 원하는
바를 더 정확히
전달해준다.
강찬규 차장



받아들여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서덕승 사원



상황을 파악하며
듣는다. 원인 해결의
50%는 내부 고객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임용범 부장

지금은 '소리'의 시대

이어지는 집콕 생활과 팬데믹 우울증, 영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영상을 넘어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넘어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영상 플랫폼의 발달은 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여기에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으며 외부 활동의 제약을 가져왔다.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소파에 파묻혀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과도한 영상 시청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야기했고, 좀처럼 끝나지 않는 팬데믹은 우울감을 전했다. 휴식과 치유가 필요했으며, 그렇게 대두된 것이 바로 '소리'다. 힐링을 목적으로 한 ASMR을 시작으로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힐링과 멀티태스킹은 오디오 시장 확대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한데, 힐링의 경우 정신과 육체를 이완시키는 다양한 자연의 소리나 결핍의 정서를 충족시키는 무궁무진한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으며, 멀티태스킹의 경우 여러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에 익숙한 MZ세대에 오디오북 등의 콘텐츠는 너무도 유용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오디오북 시장은 급성장 중인데, 미국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의 '2020년 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오디오북 시장 규모는 267억 달러로 평가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24.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소리의 시대인 것이다.



audible
an amazon company



Walt Disney
ZENIMATION
Refresh your senses
with a moment of mindfulness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확대

오디오 콘텐츠 시장의 확장, 대표적으로 ASMR과 오디오북을 들 수 있는데, 우선 유튜브 속 오디오 콘텐츠의 확장은 눈 여겨 볼 만하다. 동영상 대신 사진을 배경으로 클래식, 자연의 소리, 사 연 소개 등의 오디오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늘 어가고 있으며, 명상 음악이나 바람 소리, 물소리 등 특정 공간의 소리를 표현한 앰비언스 사운드(Ambience Sound)나 ASMR 등의 경우 1억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트렌드를 감안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디즈니의 경

우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에서 제니메이션을 공개했 는데, 제니메이션이란 기존 클래식 애니메이션 클립의 대화, 음 악 등을 실제 주변 소리로 대체하는 ASMR 스타일의 짧은 비디 오 시리즈다. 예를 들어 알라딘과 자스민이 마술 카펫을 타는 장 면에 실제 바람 소리를 부각시키거나 모아나 애니메이션에서 파 도 소리를 강조해 감흥을 배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선진 기업들이 오디오북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구 글은 2018년 한국을 포함한 45개 국에 오디오북 서비스를 출시,

오디오북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아마존 은 2008년 오디오북 제작업체 오디오블(Audible)을 인수한 뒤 오 디오북 서비스 아마존 오디오블(Amazon Audible)을 운영하고 있 다. 오디오 유튜브로 불리는 스폰라디오는 쌍방향 소통과 창작자 보상을 강점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며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 하기도 했다. 팟캐스트 서비스 '팟프리카'를 운영 중인 아프리카 TV도 최근 NHN의 '팟티'를 인수하며 신규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를 준비 중이다.

휴식과 치유의 소리

앞서 언급했지만 오디오 콘텐츠의 장점은 피로가 덜하며 멀티태 스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과도하면 좋지 않겠지만, 실상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하도 록 하자. 출퇴근 시 좋아하는 연예인의 목소리로 양서를 듣고, 휴 식 시간엔 육체와 정신을 이완시켜주는 명상 ASMR을 들어보면 어떨까. 빗소리를 들으며 꿈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근사할 것이 다. 단, 어떤 오디오 콘텐츠가 자신에게 휴식과 치유의 계기가 될 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세플러인의 '귀' 관련 요즘 취향

Application Wooden chair






유튜브를 통해 듣는 Jazz

"저는 유튜브를 통해 ASMR을 찾아서 들습니다. 특히 재즈와 빗소리를 즐겨 듣는데, 악기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재즈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큰 힘이 됩니다. 빗소리 또한 반복되는 소리가 심신을 안정시켜줍니다."




김대성 과장
물류 네트워크 관리

Layers Classic

휴대폰 너머의 클래식 선율

저는 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요.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가족의 목소리는 커다란 에너지가 됩니다. 요즘엔 조카들의 목소리도 힘이 되네요. ASMR을 자주 듣지는 않지만 독서할 때 집중하기 위해 장작 타는 소리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노래, OST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3중주로 들려주는 Layers Classic 채널을 자주 들립니다.




이현중 대리
NPM

Clubhouse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

나뭇잎이나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차 속에서 듣는 빗소리는 정말 좋아요. 빗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는 퇴근 후 반겨주는 가족의 목소리죠. 하루의 피곤이 모두 사라지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오디오 어플은 '클럽하우스'입니다.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김성진 과장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JAMBAKSA




상황에 맞춰 듣는 자연과 뇌파 소리

최근에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잠박사N 자연소리 JAMBAKSA Nature'이라는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의 소리와 뇌파 소리를 섞어서 만든 소리들을 들려주는데,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경우나 숙면이 필요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소리들을 분류해놓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했는데,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네요.



한정규 과장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국내영업



일상의 경청, 행복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다양한 소리가 삶을 채웁니다. 아침을 깨우는 아이들의 해맑은 콧노래,
분주한 오후의 발자국 소리, 퇴근길에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소리,
삶에 귀 기울일수록 삶은 더 행복해져 갑니다.



Rest
Info

경청하고 있습니까?

퍼빙 금지부터 맥락적 경청까지 다양한 경청의 법칙을 소개한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소통 시에는 다른 사물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말하는 상대방의 몸짓, 감정에 집중하자.



1

대화 전, 휴대폰을 넣어라

대화나 회의가 시작되었다면 휴대폰부터 치워라. 휴대폰은 퍼빙(Phubbing)을 야기하는데, 퍼빙이란 휴대폰의 'Phone'과 무시한다는 의미의 'Snubbing'의 합성어다. 휴대폰을 사용하며 건성으로 눈만 맞추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무리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이라도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단어만 인지할 뿐 대화의 맥락이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 효율적 대화를 지향한다면 멀티태스킹을 지양하자.

2

대화 초반, 단정하지 마라

상대의 말이 시작되고 다음의 내용을 단정해 말을 끊는 경우가 있다. 기준점 휴리스틱 때문인데, 경험했던 인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이 기준점이 되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며 전체적 사실을 왜곡해 이해하는 확증편향 또한 이에 속한다. 대화가 시작되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말을 끊지 말고 대화 내용을 끝까지 듣고 판단하자.

3

대화 중반, 백트래킹하라

상대의 말이 끝났다면, 백트래킹이 필요하다. 백트래킹은 상대의 마지막 말을 반복하거나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며 주요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으로, '원하시는 게 이거 맞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군요' 등 상대의 말을 이해한 후 되묻는 순간 자신이 상대에 집중하고 있음을 어필할 수 있고, 주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잊지 말자, 상대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요약하고 되묻자.

4

대화 후반, 맥락적 경청을 이어가라

대화 시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맥락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의 의도와 감정까지 헤아리는 것이다. 경영 그루 피터 드러커 또한 의사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이야기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크게 보고,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처한 큰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의 대화 의도를 천천히 짚어가도록 하자. 아마도 상대가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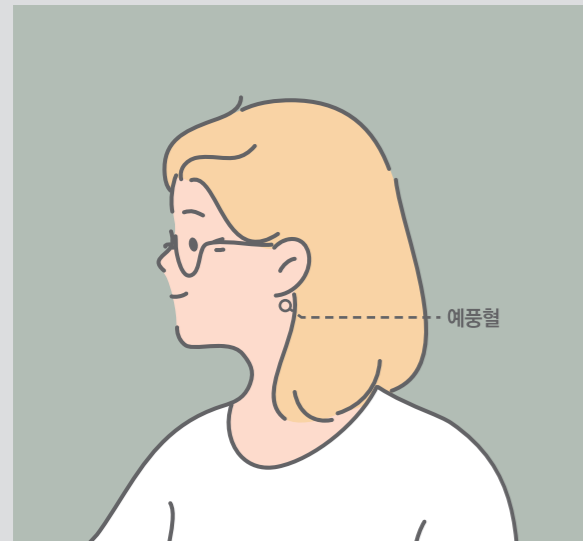
5

대화 후, 무조건 기록하라

대화가 끝나면 중요 내용을 무조건 기록하도록 하자.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화가 끝나고 10분 정도 지나면 대화 내용의 50%를 잊어버리고, 24시간이 지나면 10%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맥락적 경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90%의 내용을 흘려보낼 수 있다. 다산 정약옹은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으라고 했다. 대화 후 메모 시에는 요청사항, 해결 방안, 방향성 등 핵심 사항을 구분하면 더 효과적이다.

귀, 건강한가요?

알게 모르게 혹사 당하고 있는 귀, 일상에서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을 정리했다.



마스크 때문에 아픈 귀는 '예풍혈'을

마스크가 필수인 시대. 장시간 착용하다 보면 귀 뒤 쪽의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귀에 가해지는 자극들은 귀 뿐 아니라 신체를 피로하게 만드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풍혈'을 지압하는 것이 좋다. 귓불 뒤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하며, 이곳을 지그시 누르면 머리로 통하는 기혈의 순환을 도와 피로, 두통, 현기증, 이명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단, 지압 전 손 세척을 잊지 않도록 하자.



이어폰은 '60-60 법칙'으로

무선 이어폰의 대중화로 더 혹사당하고 있는 우리의 귀. 이어폰의 과도한 사용은 세균 번식의 환경을 만들고, 외이도를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며, 나아가 외이도염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적당한 사용 시간 준수가 중요한데,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이른바 '60-60 법칙'을 권고한다.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하루 60분만 사용하면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60분만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30분에 1번씩 이어폰을 빼고 귀를 쉬게 해주자.



귓불 몽우리는 '자극 차단'을

간혹 귓불에 몽우리가 잡힐 때가 있는데, 이를 표피낭종이라고 한다. 표피낭종이 잡힌다고 손으로 짜거나 해서는 안 된다. 피부 내에서 파괴될 경우 손상이 심해져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염증을 동반한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표피낭종은 외부 자극을 차단할 경우 대부분 염증이 완화되면서 크기가 줄어들다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물론 통증이 심할 경우엔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뭘 수 있는 한 귀를 만지지 말고, 취침 시에도 귀가 베개에 닿지 않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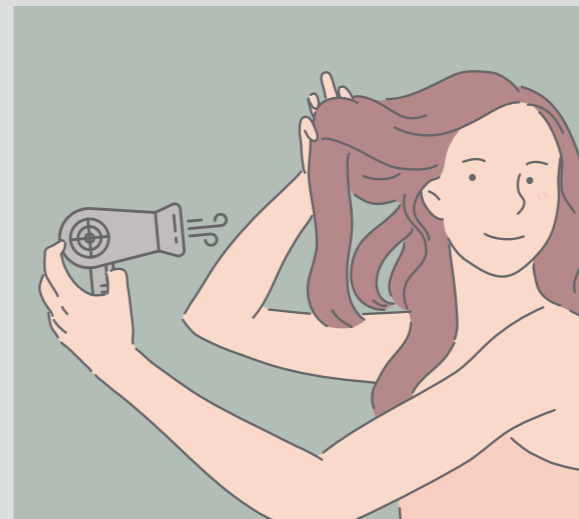
귓속이 간지러울 때는 '식초-물 요법'으로

가끔씩 참을 수 없도록 간지러운 귀. 그렇다고 귀지를 제거하거나 손가락 등으로 귓속을 심하게 긁어대는 행동은 지양하자. 귓속 피부는 생각보다 연약해 쉽게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긴다. 이럴 땐 '식초-물 요법'을 활용하자. 식초와 생리식염수를 1:2 비율로 섞은 후 주사기에 담아 귓속에 3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5분간 기다리자. 이후 흘러나온 물을 닦고 말리면 되는데, 하루 3차례 반복하면 가려움증을 다스리고 염증도 가라앉힐 수 있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손바닥 압력'으로

물놀이는 물론 반신욕이나 과도한 샤워 시 귀에 물이 들어가곤 한다. 갑갑하고 불편한 느낌에 면봉을 넣어 닦아내고 하는데, 이는 귀 건강을 위해 좋지 않은 행동이다. 면봉이 상처를 내고 세균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이 들어간 귀를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힘주어 누르자. 압력 차이로 물이 생각보다 쉽게 빠져 나온다. 헤어드라이어 귀에서 15cm 떼어 찬바람으로 말려도 귓속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아이슬란드의 오로라와 서울의 박물관

한영제 대리가 전하는 환상의 아이슬란드 여행기와 서울사무소 근처 핫한 여행지.



한영제 대리
트랜스미션 시스템 BD 국내영업

오로라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한영제 대리입니다. 대학 동기 및 후배와 함께 오로라를 보러 가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2018년, 열심히 여행 자금을 모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이슬란드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번은 꼭 보고 싶었던 오로라, 아주 많이 기대했어요. 일정도 9박 10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경이로운 대자연

오랜 시간 아이슬란드를 돌았어요. 당시 겨울이었는데,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아이슬란드는 지역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폭포 스코가포스, 얼음으로 만들어진 블루크리스탈 동굴, 빙하의 랜드마크 요쿨살론, 지열에 따른 온천지역으로 유황 냄새가 가득한 흐베리르 등 그야말로 경이로운 대자연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느린 여행

아이슬란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넉넉히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대자연의 감동을 시간의 구애 없이 느낄 수 있거든요. 지역마다 숙박시설이 있고 나름 쾌적하답니다. 차량 렌트는 필수이니 참고하시고요. 워낙 광활한 지역이라 차량이 없으면 투어가 힘들어요. 차량으로 이동할 시 이동하는 포인트에 따라 숙박 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좀 비싼 편이어서, 대부분 조리용 한국 음식을 사서 만들어 먹었어요. 점심으로 마트에서 핫도그 세트를 샀는데, 양고기 핫도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요. 기상악화로 일부 지역 입장 통제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굴포스 폭포



요쿨살론 빙하 호수



레이카비크의 오로라 모습



떡박물관

떡박물관은 우리 조상의 슬기로운 삶의 모습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상설전시관 제1관에서는 세시 명절마다 즐겼던 떡과 떡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제2관에는 일생 동안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의례에 대한 상설 및 특별전시관이 있어요. 떡 만들기 및 전통음식 체험도 가능해요.

-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71
- 🕒 오전 10시 ~ 오후 6시 (일요일 및 설날·추석 당일 휴관)
- 📞 02-741-5447



©떡박물관

돈의문박물관마을

한옥, 추억의 골목길, 근현대 건물까지 서울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 단위 문화시설입니다. 특히 레트로 감성이 충만한 안내 표지가 인상적인데, 이방인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해 참으로 따뜻하게 다가와요. 낯선 방문객의 물음에 동네 사람들이 답을 하는 듯한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 📍 서울 종로구 송월길 14-3
- 🕒 오전 10시 ~ 오후 7시(매주 월요일 휴관)
- 📞 02-739-6994



©돈의문박물관마을

바이닐엔플라스틱

스트리밍이 아닌 실제 음악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이에요. 1만종 이상의 바이닐(LP)과 CD를 판매하고 있으며, 턴테이블과 카세트플레이어의 낭만적인 아날로그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Tiny Desk Concert)' 공연 동영상을 찍어 유명해진 곳입니다.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48
- 🕒 낮 12시 ~ 오후 6시(월요일 휴무 설, 추석연휴 휴무,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운영)
- 📞 02-2014-7800



©바이닐엔플라스틱

서퍼스트

수상레저 맛집, 서퍼스트를 찾으면 독섬한강공원에서 카약과 패들보드 체험이 가능해요. 크게 일출(선라이즈), 데이(오전~낮), 일몰(선셋), 세 타임으로 체험시간이 나눠져 있으며, 강사들이 멋진 인생샷을 찍어주기도 해요. 이색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커플이나 퇴근 후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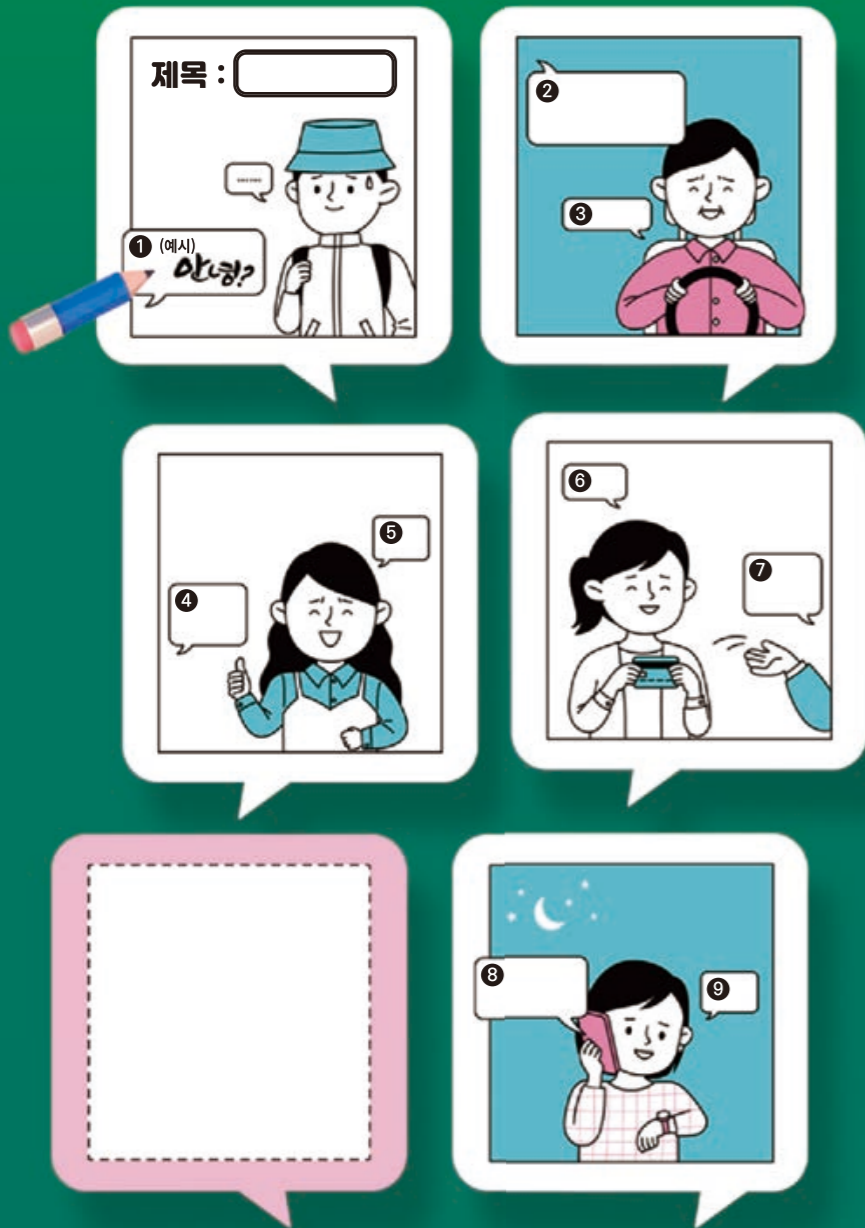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64 서퍼스트
- 🕒 오전 4시 30분 ~ 오후 9시
- 📞 010-6547-1067



©서퍼스트

말풍선에 담긴 상상력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의 풍부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었던 말풍선 채우기 대회. 손수 그림을 그린 최우수상부터 영업사원의 하루를 보여준 참가상까지, 임직원의 다양한 상상력을 소개합니다.



〈세플러+원〉은 2021년 Winter호를 통해 임직원 및 가족에게 6컷 만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응모해주셨고, 올 한 해 동안 수상작 및 훌륭한 작품들을 사보에서 소개합니다.

수상자 안내

최우수상

안산 엔진컴포넌트 BU 엔지니어링
김성완 수석연구원 자녀 김효원

우수상

서울 새시시스템 BD 영업 민광운 차장
연구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국내 엔지니어링 하병훈 과장 조카 방솔희

장려상

안산 설비보전 유갑수 과장 자녀 유혜인
서울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이겨레 과장
창원 툴센터 백명곤 사원 자녀 백민지

크리에이티브상

연구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해외 엔지니어링 이석훈 부장 자녀 이영서



최우수상



김효원

안산 엔진컴포넌트 BU 엔지니어링
김성완 수석연구원 자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염병으로 모두 지쳐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플러 가족 파이팅!



 참가상

김태영 대리
전주 품질보증

“몸 따로 마음 따로”

모두 웃으며 대답하고 있지만 어딘가 불편한 듯한 표정에 상상력을 조금 더하여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은 금요일에 잡힌 화식, 오늘은 그다지 먹고 싶지 않은 점심 메뉴, 늦은 시간 요청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절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그려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런 상황이 오면 역시나 긍정적으로 대답하겠죠?



 참가상

장장환 계장
창원 테이퍼열처리

“영업사원의 하루”

요즘 코로나19로 영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영업사원의 고충을 6컷 만화에 담아보았는데, 공감하시나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체플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 힘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파이팅!

뉴스 하이라이트

세플러코리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플러+원>에서 세플러코리아의 소식을 모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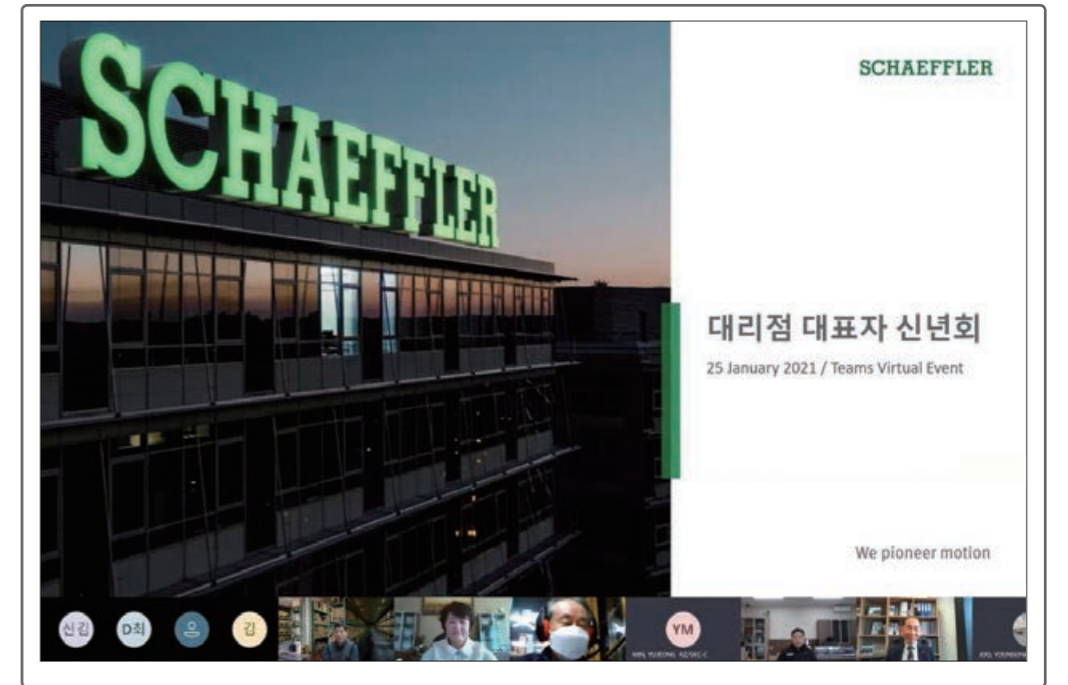


'2021 서플라이어 데이' 온라인 개최

세플러코리아가 지난 3월 22일 세플러 80여 개 국내·외 협력사를 초청해 '2021서플라이어데이(Supplier Day)' 행사를 비대면 라이브로 진행했다. '서플라이어데이(Supplier Day)'는 세플러코리아가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최신 미래 트렌드 및 세플러그룹의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를 비롯해 세플러 구매 매니저, 80여 개 국내·외 협력사 대표자 등 약 1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진행은 그룹사 및 세플러코리아 사업 현황, 구매 정책에 이어 미래 기술 트렌드 제시, 우수 협력사 시상식 등으로 이어졌다. 세플러코리아는 세플러 그룹에서 바라본 미래 기술 트렌드 5가지와 오토모티브 시장 동향 등을 소개했다. 세플러는 미래 트렌드로 △지속가능성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 환경 변화 △자율 생산 △데이터 경제 △인구 통계 변화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소 기술 △자동차 새시 및 애프터마켓 서비스 △자율주행 기술을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상은 베스트 컨트리뷰션(Best Contribution), 베스트 퀄리티 상(Best Quality)으로 나뉘어 주어졌으며, 총 6개 업체가 수상했다. 베스트 컨트리뷰션 상 산업기계 부문은 (주)엔비지, 자동차 부문 (주)현진정공, 생산 직접 자재 부문 베스텍, 간접 자재 부문 이화 다이아몬드공업이 각각 차지했다. 또 베스트 퀄리티상에서는 (주)자이언엔텍, (주)건우금속 협력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플러코리아는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협업, 상생을 통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기계 부문 등 미래 생태계 변화에 맞춰 업계 흐름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층 성장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 서플라이어 데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매 안대환 상무



산업기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 비대면 행사



산업기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 비대면으로 진행

지난 1월 25일, 세플러코리아 산업기계 부문은 대리점 대표자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2021년 세플러코리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를 진행했다. 대리점 대표자 초청 신년회는 세플러코리아가 대리점과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산업기계 대리점 대표자 27명과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를 비롯해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이 참석했다. 2021년 신년회는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졌으며, 우수 대리점 시상식에 이어 세플러코리아 유통 정책을 발표했다. 우수 대리점 시상에는 총 13개 대리점이 수상했다. 매출상은 (주)종로, (주)동명베어링, 서원물산(주), 디에스콘, (주)위더스테크놀로지, (주)세광티엔에스, 서진베어링 등 총 7개 대리점이, 성장상은 명성베어링, 대상베어링, 대영베어링, 동도베어링, CS4U, 종로베어링(주) 등 총 6개 대리점이 수상했다.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는 "지난해 어렵고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대리점 대표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잘 이겨 내셨다"며 "세플러코리아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플러코리아,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2021 선정

세플러코리아가 글로벌 리서치 기업 '스태티스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2021>에 선정됐다.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는 최고의 직장 탑 5에 선정됐다. 독일에 본사를 둔 스태티스타는 뉴스위크, 파이낸셜타임스, 포브스 등 세계 권위 지들과 함께 매년 최고의 직장을 조사해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올해 처음 진행한 것으로, 총 4,500여개 기업 중 30개 산업 분야에서 400개 기업이 선정됐다. 평가는 기업 이미지, 신뢰도, 성평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화, 복지 등 항목을 바탕으로 임직원들 대상 설문을 통해 진행했다. 세플러코리아는 직원들의 발전과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세대, 성별, 지역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하는 기업 문화 등이 높게 평가됐다. 세플러코리아는 그룹 차원에서 운영하는 세플러 아카데미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턴 사원부터 고위 관리자까지 모든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 개발부터 업무관리, 직무 역량, 정보 기술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파견을 통한 교육 및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을 위한 세플러 그룹의 단계별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는 "세플러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에 선정된 것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경영방침과 더불어 열정적인 임직원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세플러코리아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에도 기여하는 건강한 기업으로 영속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AAM)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 온라인으로 진행

세플러코리아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AAM) 사업부는 지난 2월 23일 대리점 대표자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비대면 '2021년 세플러코리아 AAM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를 진행했다. 세플러코리아는 대리점과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하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팀즈(Teams)를 통해 전국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AAM) 대리점 대표자 13명과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등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세플러코리아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AAM) 2021년 정책 발표와 대리점 시상식 등으로 이뤄졌으며, 최우수 및 우수 대리점 총 6개 대리점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낙원 베어링, 서진 트레이딩 2개 대리점이 차지했고, 우수 대리점은 전우 APS, SK networks, 세종 파츠 플러스, 창영 베어링 등 4개 대리점이 수상했다. 한편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는 "지난해는 유례없는 코로나 19 위기로 모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해준 모든 대리점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협업, 상생을 통해 공동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AM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에 참여하고 있는 AAM 유근성 상무



We pioneer motion

We are nominated as Best Employer 2021



We are proud that Schaeffler Korea is nominated as Korea's Best Employer 2021. As part of Europe's biggest family-owned company that is a leading global supplier to the automotive and industrial sectors, we play a pivotal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 of Schaeffler Group. Our employees are the key driving force behind our success. www.schaeffler.kr

SCHAEFFLER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8기' 해단식 진행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EVERGREEN) 8기'가 해단식을 진행했다. 해단식은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NGO '함께하는 사랑밭' 사옥에서 열렸으며, 에버그린 8기 단원들의 봉사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과 수료증·수료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8기는 지난해 9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동, 독거노인, 미혼모 등 국내 취약계층을 위해 총 여덟 번의 봉사활동을 가졌다. 저소득가정 아동에게는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이 담긴 행복주머니와 에코백, 필통 등 학용품들을 전달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화곡초등학교 외벽에 직접 벽화를 그렸다. 또 미혼모를 위해 '미모키트'를 제작하였으며,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식료품과 생수 배달, 연탄 등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다. 세플러코리아 담당자는 "제 8기 에버그린 봉사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봉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버그린 해단식에 참석한 제8기 에버그린 단원들

창원시 저소득층 학생 66명에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세플러코리아가 창원시 저소득층 학생 66명에게 장학금 3천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원 학생은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생 36명, 공업계 고등학교생 30명을 선발했다. 장학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며, 학생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세플러코리아는 2003년부터 매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남 창원지역 초등학교생과 공업계 고등학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장학금 누적 금액은 14억 2,480만 원이며, 누적 수혜자는 1,945명이다. 이밖에 세플러코리아 전주사업장에서도 해마다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플러코리아 담당자는 "세플러코리아는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지역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해 꾸준한 장학금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창원시에서 장학금 지원으로 보내온 감사패

Reader's Page

참여방법



jooyun@schaeffler.com

보내실 때

코너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응모 마감

4월 30일까지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문자보내기로 보내주세요.

* 문자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담당자 메일을 넣어 전송 끝.

지난호 당첨자 명단

퀴즈

- 서울 배지나 (배병렬 부장 자녀), 김성만 부장 (Global Technology Service)
- 안산 전용식 책임연구원 (벨트&체인 드라이브 시스템 BU 엔지니어링)
- 전주 조완신 사원 (공장구매)
- 창원 신승수 사원 (창원 테이퍼베어링 열처리)
- 연구소 손종오 선임매니저 (프로토타입 센터)

숨은 캐릭터 찾기

- 전주 김선아 사원 (전주물류), 이병렬 과장 (볼세그먼트)
- 안성 황장호 부장 (안성물류)
- 안산 최승연 (최춘현 대리 자녀)

독자의견

- 창원 장영진 배우자 (단조 세그먼트)



기자단

사보기자단

- 서울 박지수 대리, 김유정 대리
- 창원 기대환 부장, 손강우 사원
- 안산 정배근 대리
- 전주 김상연 사원, 최규철 사원
- 연구소 박광수 대리

사보담당자

-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 민유정 차장, 주윤선 대리

퀴즈 1

자이덴크란츠 로버트 CFO가 요즘 영감을 얻고 있는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맥레이브 제목이 2017년 출간한 책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10가지 방법이 수록되어 있어요.

퀴즈 2 - 년센스 수학 퀴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도 다양한 창의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보를 통해 창의력도 키우고 상품도 받아 볼까요? 아래 문제의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begin{aligned}
 \text{꽃} + \text{꽃} + \text{꽃} &= 60 \\
 \text{꽃} + \text{새} + \text{새} &= 30 \\
 \text{새} + \text{새} + \text{새} &= 9 \\
 \text{꽃} + \text{새} + \text{새} &= 42 \\
 \text{꽃} + \text{새} \times \text{새} &= ?
 \end{aligned}$$

셰플러 CONCEPT1 - 자동 윤활의 시작



CONCEPT1 - 싱글 포인트 자동 윤활 장치

베어링의 약 70~80%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재윤활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작업 시 윤활양 조절에 실패하거나 윤활 시점을 놓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윤활부를 통해 들어가면 조기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ONCEPT1 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은 줄이고, 설비의 서비스 수명을 늘려보세요.

(문의) 02 311 3000 / industry4.0_korea@schaeffler.com
www.schaeffler.com

SCHAEFFLER